

## \*\*한국현대박물관건축의 분석지표로서 술츠의 ‘장소성’ 이론 적용에 대한 연구

A Study on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ceness’ by Christian Norberg Schultz as a Barometer of Analysing Contemporary Museum Architecture in Korea

이정화\* / Lee, Jung-Wh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eory of ‘placeness’ permeated through contemporary museum architecture in Korea, and hereby to prove the possibility of coping with the modernity in Korean architecture.

In this study the theory of ‘placeness’ which is asserted by Christian Norberg Schultz has been adopted in debating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Korea. Therefor the theory of ‘placeness’ has been researched to get an angle of vision on the proof of coping with the modernity in Korean architecture. Seven contemporary museum architecture which have been completed since 1990 have been examined in the view of morphology, topology, and typology which are the major factors of ‘placeness’. Throughout this case study, the post-modernity in museum architecture in Korea has been proved, which establishes that the ‘placeness’ is one of the alternatives for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Korea.

키워드 : 술츠, 장소성, 한국현대박물관건축

Keywords : Christian Norberg Schultz, Placeness, Contemporary museum architecture in Korea

### 1. 서론

서구식의 근대화가 전 세계를 잠식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한국의 근·현대 건축 역시 근대 서구건축의 이념과 구성이론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다. 서양의 문화와 건축양식이 타율적으로 도입된 한국건축은 그 동안 자의적 수용과 이해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 채 모더니즘의 시기를 거치게 된다.

한국의 박물관건축 역시 해방 후 모더니즘 초기까지 동시기의 다른 건축 상황과 같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한다.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건축 상황은 전후복구, 재건이라는 당면과 제로 주거용 건축이나 생산용 건축이 주로 우선되었으며, 따라서 박물관뿐 아니라, 다른 어떤 문화건축에 대한 투자의 여유도 충분치 못하여, 특히 공공건축으로서 문화건축은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1960, 70년대의 한국박물관건축은 5.16혁명 이후 국가경제가 우선이라는 상황에서 문화건축에의 투자는 여의치 않았으나,

기능성이나 경제효율을 가치로 삼던 당시의 분위기에서도 문화건축에는 표현의 의지가 강하게 내재될 개연성을 사회가 어느 정도 양해<sup>1)</sup>함으로써 박물관건축분야가 한국건축문화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표현은 형태중심의 전통에 몰두하여 단보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래도 이러한 표현의 경향이 한국의 모더니즘으로서는 토착성의 실험대상이 되는 것으로, 철저한 합리주의로서의 구체성 대신 그 나름의 지역성을 내포하는 특질을 갖게 된다. 즉, 박물관건축의 조형은 전통과 토착적 의사에 연유시키어 박물의 내용이 직접 건축조형의 상징체계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sup>2)</sup>

1980년대의 한국박물관건축은 1984년 박물관법 제정, 1985년 공포, 제5공화국이후 국가경제의 안정, 제6공화국에서의 문화부 독립,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과 같은 세계적 행사 등으로 문화적 욕구가 두드러지게 되면서, 관주도의 대형건축물, 그리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민간주도의 주제가 다양한 특수박물관 등의 활기로 낭만적이고 자율적인 개체적 표현의 건축으로 변화한다. 1990년대에 들어 한국사회는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 지방

\* 정희원, 한양여자대학 인테리어디자인과, 교수

\*\* 본 연구는 2005년 제1학기 한양여대 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1) 서상우,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5, p.18.

2) 서상우, 앞의 글, p.21.

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각 지역의 박물관건축이 활성화되고, 건축 표현에 있어서도 정치와 경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이 회복된 건축적 표현과 건축가 나름의 창의적 해석에 따른 표현이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매김<sup>3)</sup>하게 된다. 즉 90년대의 한국박물관건축은 다원화, 다양화된 모습으로, 자율성과 개인의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과거를 바탕으로 현대와 미래의 가교적 역할로서의 원형이 되는 건축표현의 탐구시기로 확인된다.

박물관건축의 경우, 박물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수성으로, 모더니즘 시기에서도 건축표현의 양상이 지역성의 특질을 내포하기 된다. 물론 그 표현의 방식은 단보적이나, 한국건축이 근대 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시기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모더니즘 시기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던 인간성회복, 다원적 의미의 건축형태추구, 지역성 모색 등은 이 시대의 공통의 화두가 되고 있다.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한국건축이 나타내려하는 많은 표현의사 중에서 한국이라는 시간성-역사성과 공간성-장소성의 인식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근거를 Christian Norberg Schultz의 '장소성'에서 찾아 이를 한국의 현대박물관건축을 바라보는 하나의 지표로 삼음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한국현대박물관건축의 현재적 상황을 알아봄으로써 한국건축의 위상정립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논의의 근거가 되는 Christian Norberg Schultz의 '장소성'과 술츠가 제기하는 '장소' 발현을 위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따른 '장소성 발현'의 유형을 구분, 이를 단서로 건축표현의 탐구시기로 확인되는 1990년대 이후 완공된 박물관건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2. Christian Norberg Schultz의 건축론

현대건축의 여러 표현적 성향들은 넓게는 국제적 혹은 미래지향적 특성에서 역사적 혹은 지역적 특성으로, 그리고 양식-표현적에서 의미-표상적 움직임으로 이해<sup>4)</sup>된다. 여기서, 건축가의 영감의 근원은 장소의 특수성이나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정신이 되며, 이러한 단편들의 형상적 표상화에 대한 강조는

건축이론가 Christian Norberg Schultz의 '장소성'개념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국수적 성격의 지역주의 운동과 달리, 건축의 본질에 대한 재-이해 그리고 상실해 가는 장소성의 의미나 인간의 생존적 힘의 근원으로 존재인식의 회복을 통한 건축의 새로운 사고적 접근을 강조<sup>5)</sup>한다.

술츠 건축론의 중심개념은 '장소성'이다. 현상학<sup>6)</sup>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장소'의 개념은 세 가지-'심리학적', '실존적', 그리고 '역사적'-사상 경향으로 요약된다. 이 논리의 배경에는 인간의 물리적 환경의 가치와 형태에 깊이 관계하는 그의 태도를 볼 수 있다. 술츠에게 있어 건축의 의미는 기능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는 근대의 정신은 그 도구를 과학만으로 국한하였으나, 이제는 상징체계의 다른 유형들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즉, 상상력이 사라진 이성으로서의 과학주의는 존재의 상실이며,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술로 알려진 큰 부류의 상징체계라는 것이다.

술츠는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에서 근대건축이 과소평가 한 장소의 의미와 이미지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장소가 '장소혼 Genius Loci'<sup>7)</sup>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이는 공간과 형태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8)</sup> 이는 사물과 장소의 상실은 세계의 상실이며, 참여와 정체성의 감각을 상실하는 존재의 상실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 2.1. 장소성

'장소성'의 개념은, 특히 공간을 중시하였던 근대건축이 극히 추상화되고 무미건조한 도시환경을 산출하자, 인간적 의미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의 비판으로 시작하면서 부각되기 시작되었다<sup>9)</sup>. 과거 인간의 삶은 대상과 장소에 긴밀히 연결되어 소유와 정체성의 감각을 지닐 수 있었으며 그러한 세계는 특성을 지닌 의미 있는 세계로 경험되어 참여와 의미에 대한 근거를 형성시켰다, 그러나 근대건축은 인간을 장소로부터 소외시키고 이로 인해 인간은 정체성을 잃게 되었다. 건축을 분석적으로만 다룰 때, 인간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실질적 토대감을 주는 구체화된 환경적 성질은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5)변태호, 앞의 글, p.53

6)현상학은 분석철학과 함께 20세기 현대철학의 2대 조류의 하나로 근대의 정신적 상황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위기'로 간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나타난 철학적 태도로서, 본질들에 대한 탐구<sup>11</sup>를 학문의 이념으로 하는 본질철학으로서 훗설이 그 창시자이다. (페를로 풍티, 오병남 역, 현상학과 예술, 서광사, 1983, p.29.)

7)원래 '토지령'이란 로마의 개념으로 고대 로마인들은 모든 독립적인 존재에는 그것의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다. 이 수호신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며 인간과 장소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그들의 특성과 본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8)Christian Norberg Schultz, 민경호 외 역, 장소의 혼, 태림문화사, 1996, p.27.

9)박항성·윤도근, 한국현대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7호, 1998, 12, p.75.

3)김경재, 한국현대건축에 표현된 한국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7호, 1998, 12, p.79.

4)변태호, 시적 거주와 세계내 존재의 언어기호적 치환, 건축 역사연구, 제6권 2호, 1997, 6, p.53.

장소가 없다면 인간의 삶은 발생할 수 없다. 장소는 삶이 어나는 인간거주의 구체화된 공간이며 건축은 인간에게 이러한 '실존적 토대'를 제공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다. 따라서, 거주는 건축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인간 스스로 환경 내에서 정위하고 환경과 함께 정체성이 형성되어 환경을 의미 있게 경험하게 될 때 인간은 거주하게 된다. 건축은 이러한 의미 깊은 장소의 창출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1) 장소의 의미

환경에 대해 인간의 실존적 존재를 나타낸 말이 '장소'이다. 인간은 공간 내에서 행동하지만 인간의 행동이 그 공간에서 어떤 의미를 찾지는 못 한다. 인간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공간에서 찾고자 함은 인간의 기본요구이며, 이러한 요구는 공간이라는 추상적 개념보다 장소라는 구체적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로 구성된 장소들은 '장소의 혼'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모두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어떤 속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은 그 장소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이미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 (2) '장소'의 형성

인간은 복잡한 방식으로 공간과 장소에 대응하는데, 어떤 대상이나 장소는 그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모든 감각을 통해 총체적으로 이뤄질 때 구체적인 실체가 된다. 즉 우리들이 공간을 구체적 실체로 느낄 때 그것이 곧 '장소'가 되는 것이다. 공간이 한정되고, 의미를 얻을 때 '장소'로 변환되며, 즉 개방된 공간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백지와 같고, 그 공간이 한정되고 인간화되면 '장소'로 변화한다.

#### (3) 장소의 현상과 정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이름이나 표현은 달랐어도 장소의 정신, '토지령 Genius Loci'는 살아 있는 실체로서 존재해 왔다. '토지령 Genius Loci'의 함축적 의미는 '존재'에 대한 해석적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이 말이 유래한 로마시대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하이데거의 '거주dwelling'에 대한 사색의 방법이다. 즉, 인간과 장소사이의 적절한 관계제공을 통해 인간이 거주하도록 하는 '정신적인 힘'인 동시에, 예술가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정수이며, 장소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운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존재영역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한다. 즉, 건축은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관계하는 구체화된 실체로서의 '장소의 혼Genius Loci'을 가시화함을 의미한다.

#### (4) 실존 공간

술츠는 근대건축공간의 한계는 공간을 '건물의 3차원성'으로 만 파악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실존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술츠의 '실존 공간'은 인간의 실존 그 자체가 공간적이라는 하이데거의 공간개념을 토대로 한다. 인간이 느끼는 공간적 체험이란 자신이 놓여진 상황과 실존적 공간사이에서 생기는 긴장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 실존

성은 인간행위의 많은 공간양상이 위상적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출발한다.<sup>10)</sup> 이렇듯 실존적 공간개념이라는 것은 인간존재에 필연적 수단이며 인간과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의미가 내포된 장소적 개념을 지닌 환경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능케 하는 전체로서의 장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진정한 의미의 건축적 실존공간은 자유로운 인성을 전개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각성시킬 수 있는 공간이며, 역사적 연속성과 집단가치를 읽을 수 있는 공간이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긴장이 표현되는 공간으로서 대지에 발을 딛고 하늘을 지향하는 실존적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공간인 것이다.

## 2. 장소성 발현을 위한 세 가지 근거

술츠는 장소의 발현을 위한 인간행위에 기초한 거주의 본질적 개념으로서, '형태적 특성 Morphology', '지형 해부적 특성 Topology', '유형적 특성 Typology'를 제시한다.<sup>12)</sup> '소재인식'에 해당하는 '지형 해부적 특성 Topology'는 행위의 틀을 의미, 공간의 조직과 관계된다. '주체인식'에 해당하는 '형태적 특성 Morphology'는 환경적 특성의 경험을 의미, 건축된 그 형태에 관계있다. '기억'에 해당하는 '유형적 특성 Typology' 주체적 특성을 소유한 요소들이 인식되어짐을 의미하며, 그래서 건축적 실체와 형상에 관계되어 있다.

존재성의 인식은 기억들의 모음이며, 건축언어란 기본적으로 기억에 대한 언어이다.<sup>13)</sup> 장소를 구성하는 것은 그 장소의 지형 해부적, 형태적 구조들이며, 특히 장소성을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들은 '유형적 형상들'안에서 표상되어야 한다. 산재되어 있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일원적 모양으로 조합함으로 인해 존재의 세계를 엮어내는 것이다.

#### (1) 유형적 특성

유형학 Typology은 '기억기능'에 해당되며, 사실적이며, 구체적이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 낸 환경속의 모든 실체들을 가리키며, 그 의미는 '형상적 질'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 '기억기능'에 속하는 '유형적 형상들의 세계'는 우리가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주로의 성격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임에 그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유형적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명명되어진 '실체', 즉 건축에 있어 기본적인 '형상', 혹은 '원형'들에 대한 앞선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건축으로 인간 거주의 세계를 밝힐 수는 없으나, 거주하는 장소나 그 개념에 의해 지시되고 있는 세계의 한 측면을 나타

10) 우수영, 앞의 글, p.26.

11) Christian Norberg Schultz, 진경돈·이정국 역,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미간사, 1994, p.32.

12) 강인보, Christian Norberg-Schultz의 현상학적 건축이론에 근거한 실존적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41.

13) 변태호, 앞의 글, p.60.

낼 수 있다. 이러한 유형학의 지시대상은 ‘무엇을 what’이 될 수 있으며, 그 기능으로는 기억Memory에 해당된다. 거주의 원형적 가치, 거주의 인류학적 기능, 역사적, 어원적 가치를 특성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기억의 총체’라는 의미에서 역사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 (2) 지형해부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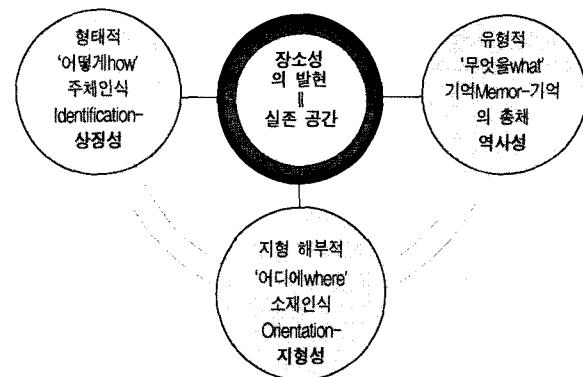
지형해부학 Topology는 공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둘째로 남아있는 기하학적 형상을 지칭한다. 이는 공간의 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조직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위상학은 물리적 공간으로서 대지의 지형적 성질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위상적 성질은 소재인식이라는 orientation의 기능과 ‘어디에, where’라는 지시대상을 갖는데, 이로써 대지의 지형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 공간은 위상적 관계의 구체화를 의미하는 조직으로, 자연으로부터 추상화되어져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의 조직을 보다 잘 표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할 때 결정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감성적인 보호인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3) 형태적 특성

형태학Morphology는 형태구성의 방법으로, 바닥, 벽, 천장, 지붕 등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들이나 기술적 방법들을 가리키며, 공간의 경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형태는 땅과 하늘사이에 위치하는 구체화된 존재로, ‘서 있는 것’, ‘솟아오르는 것’, ‘열려 있는 것’으로서 규정되며, 여기서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열려 있는 것’이라는 성질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내·외부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는 경관이라는 전체적 틀 속에서의 연속성이며, 경관의 틀 속에서 어떤 것이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경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주체 인식적 기능’은 환경이 대해 의미론적 경험으로 인간에게 소속인식을 제공하며, 이러한 인식체계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조건 지워지는 내재적 경험의 보편적 현상으로,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방법을 결정하고, 그들의 존재성이 머무는 세계로의 접근을 가능케 한다. 장소성 발현의 건축형태는 ‘주체인식’이라는 ‘identification’과 함께 ‘상징성’이라는 건축적 특질을 지니게 되는데, 그 건축의 형태는 그 구축의 근간과 의미, 그리고 그것이 산상시키는 연상 작용에 의해 구체적 대상이나 의미를 넘으로써 그 형태는 상징성을 갖게 된다.

위에서 논의된 세 개의 근거는 상호관계 속에서 각자의 의미를 드러낸다. 즉, ‘어떻게 how’라는 지시대상을 갖는 형태적 특질은 ‘주체인식’ identification을 갖기 위해 ‘상징성’을 띠어야 하며, 그 형태의 발현을 위해 내적 의미로 파악되는 ‘역사성’이라는 특성으로 유형적 특질을 끌어오며, 이러한 유형학은 그 특성의 발현을 위해 형태적 특질의 시각적 측면을 끌어온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장소이자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는 대지 특성, 즉 지형적 특성으로서의 위상학을 발현할 수 있다. 이 세

개의 건축특질이 상호관련을 갖으며, 하나의 의미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그림 1> 장소성 발현의 근거

## 2.3. 장소성의 표현 유형

본 연구가 위에서 논의했듯이 공간에 물리적, 인문적, 자연환경적 특성들이 반영됨은 곧 장소가 갖는 의미의 본질적 물음에 대한 탐구와 표현으로 귀결된다. 하이데거는 건물들은 그들의 공간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장소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획득한다고<sup>14)</sup> 하였다. 이는 건축의 본질이 장소로서의 기능과 대지 의미의 결합적 구축물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소성 표현의 관건은 장소가 갖는 특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장소성 표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건축이 그 개념에서부터 결과물로서의 조형으로 나타나기까지 장소성 구현의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이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sup>15)</sup> 어떤 장소에 대한 해석은 작마다 다를 것이며, 이는 건축디자인 행위과정의 자의적 해석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장소성 표현에 있어 대지의 특질을 드러내기 위한 작가의 표현유형은 대체로 -순응화, 추상화, 구조화, 자기장소화- 4가지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표현유형은 건축이 어느 한 가지 유형에만 개별적으로 표현되보다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당히 복합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에 주목할 일이다.

### (1) 표현유형1-순응화

자연지형과 도시 내에 위치하는 물리적 환경인자들을 장소를 둘러싼 환경과의 순응적 관점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지형과의 조화와 활용, 도시 내 경관의 시각적 연속성의 부여 등 다분히 외부 물리적 인자의 영향을 받는다.

### (2) 표현유형2-추상화

장소의 물리적, 인문적 해석을 통해 주변과의 시지각적 직접

14) Martin Heidegger, Poetry, Language, Thought, 1985, p.160.

15) 남정훈·이호진, 현대건축에 있어서 장소성 표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20권2호, 2000,10, p.531

16) 남정훈·이호진, 앞의 글, p.532.

적 대용이 아닌 은유화하여 장소의 역사와 사건들을 표현한다.

#### (3) 표현유형3-구조화

도시 내 장소의 맥락을 통해 주변의 환경적 특징과 성격적 맥락을 해석하여 장소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4) 표현유형4-자기장소화

건축이 장소적 맥락의 새로운 요소를 적용하여 장소의 정체성을 스스로 변화시키며, 또한 그 건축은 장소의 정체성을 갖는 새로운 오브제가 된다. 즉 이는 주변 맥락의 연속성이 배제된 건축으로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므로써 건축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식되는 유형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근대건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건축의 새로운 기회로서 '장소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건축이 주로 근대 서구건축의 이념과 구성이론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또한 한국이라는 토양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장소성'의 도입은 거의 필연일 것으로 본이다. 이제 본 연구는 위 세 개의 기초를 한국건축을 가늠하는 준거의 틀로 삼아 한국현대박물관건축의 본질건축, 실존건축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탐진하고자 한다.

## 3. 작품 연구

### 3.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1990년 이후 완공된 한국박물관건축물로서, 앞서 논의한 '장소성' 발현의 형태적 특성, 지형해부적 특성, 유형적 특성이 현저한 건축물로 연구대상을 한정한다.

<표 1> 연구대상 박물관건축물의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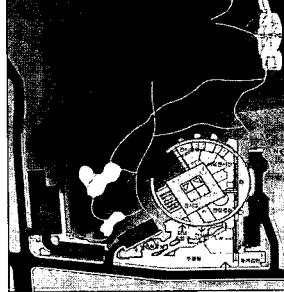
박물관명	년도	장소성			사례 선택
		유형적특성	지형해부적특성	형태적특성	
선재미술관	1991	X	X	X	X
환기미술관	1992	X	X	X	X
영산호농업박물관	1993	X	X	X	X
신안해저유물전시관	1993	X	O	X	X
국립김해박물관	1993	O	O	O	O
목아불교박물관	1993	X	X	X	X
청도농기구박물관	1993	O	O	O	O
제주영화박물관	1994	X	X	O	X
독도박물관	1997	O	O	O	O
용인 교통박물관	1997	X	X	X	X
홍릉산림박물관	1997	O	O	O	O
전주한솔종이박물관	1997	X	X	X	X
제암리3.1운동 순국유적지기념관	1998	O	O	O	O
회폐박물관	1998	X	X	X	X
문경석탄박물관	1998	X	X	X	X
삼성상회기념관	1999	O	O	O	O
양구전쟁	2000	O	O	O	O
서울시립박물관	2002	X	X	X	X

### 3.2. 작품 연구

#### (1) 국립김해박물관(장세양, 1998)



<그림 2> 외관



<그림 3> 배치도

가야문화를 전시하는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주변유적지와 전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베이스캠프로서 주변과의 적극적 대용이 가능하도록 설계<sup>17)</sup>되어 대지의 장소적 특질이 건축 조형에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으로 순응화, 추상화의 표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

① 유형적 특성: 대지가 되는 구지봉 기슭은 가야 탄생의 발원지이며, 김해는 가락국의 문화의 중심지로서 왕릉을 비롯해 초기 철기시대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다. 이러한 구지봉의 지기가 박물관 안으로 유입되어 김해의 역사적 장소성과 가야문화유적의 상징성이 잘 드러난다.

② 지형 해부적 특성: 대지는 수로왕릉을 비롯해 김해시의 주요사적지를 관람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문화의 거리' 종착점이며, 주변과의 자연스런 연계 역할을 한다. 즉, 가야전체를 포용하는 총체적 공간개념으로 설계되어 공원 내에는 원형의 경계를 두고 그 내부에는 야외전시장과 광장을 마련, 그 경계 곳곳에 출입구를 두어 외부와의 연계를 배려하고 있다. 즉, 원형 모티브의 도입으로 박물관이 유물 전시의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주변유적지와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주변과의 적극적 대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그림 3>

③ 형태적 특성: 이러한 대지의 장소성과 가야문화 유적의 상징성은 동선의 흐름과 함께 주 전시관의 외장 재료에서 잘 나타난다. 진입로에서 박물관으로 향하는 동선은 길게 최대한 연장시켜 시간과 장소의 경계인 원형 올타리를 지나 '현재'적 공간이 되는 외부에서 '과거'적 공간이 되는 내부로 진입하는 시간적 변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된다. 외장 재료에서는 '시간의 적총'<sup>18)</sup>을 의미하는 사각형의 주 전시관을 가야의 이미지인 '철제'를 사용, 철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해 가는 과정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했으나, 기능상 '검은색 강판'이 대체된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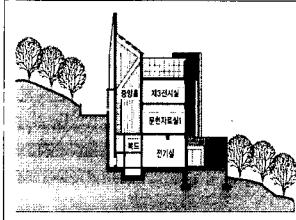
이와 같이 건축가는 박물관을 전시된 유물을 통해 시간을 회귀하여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곳으로 인식하여 '시간의 적총'을 상징화하는 건축적 조형을 시도하고 있다.

17)장세양- 국립김해박물관, 공간, 09, 1998, p.85.

18)과거와 현재의 만남: 박물관 건축, 이상건축, 04, 1996, p.52.



<그림 4> 외관



<그림 5> 종단면

## (2) 독도박물관(유건, 1997)

독도의 영토관련 역사자료를 전시, 관리, 교육, 홍보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이론적 토대구축을 목적으로 울릉도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비록 접근성의 문제로 독도에 세워지지 못하고 울릉도에 세워졌으나 건축의 의미와 상징성이 조형에 잘 나타난 작품으로 구조화, 추상화의 표현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림 4>

### ① 유형적 특성: 독도와 울릉도는

서기512년(신라 지증왕 13)이래 우산국의 영토로서 우리 역사와 문화권에 편입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 온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오늘날 일본과의 영유권 갈등으로 인해 정치, 경제, 군사, 학술 등 다방면에서 중요 위치를 차지하게 된 독도의 의미를 담은 독도박물관은 독도가 보이는 울릉도 도동 약수터에 자리하여 독도의 역사성과 그 상징적 의미를 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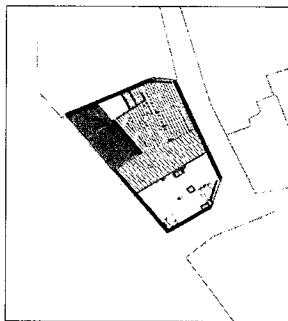
② 지형 해부적 특성: 자연 속의 대지와 산세와 능선과 마을과 바다, 성인봉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자연의 중첩된 선들, 선으로 형성되는 면들의 반복, 그 모두를 포용하는 바다가 배경이 되는 본 박물관은 울릉도 도동 약수공원에 위치한다. 울릉도는 전체가 경사 25도의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박물관의 디자인 역시 그러한 산동성이에 정지작업을 한 곳이다. 약 40평 남짓한 대지는 40도의 가파른 풍화토로서, 기존 항도 사료관과 삭도 시설 부지 사이로 겨우 확보된 6m폭의 진입로와 독도와는 92km나 떨어져 실제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열악한 대지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지형적 성격이 보는 위치에 따라 공간이 달리 보일 수 있는 다변적 공간 구사를 가능케 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림 5>

③ 형태적 특성: 오각형의 섬(울릉도)에 세워진 삼봉도(독도)박물관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관계를 고려하여 “독도박물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포하는 시사성과 상징성이 표현되도록 독도의 영토성과 역사성이 형태와 공간구성에 적절히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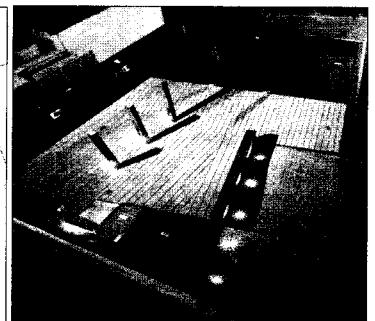
‘독(獨)’<sup>19)</sup>을 의미하는 커다란 벽은 영토의 경계를 의미하며, 평요대지를 확보하기 위한 흙막이 벽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삼봉을 상징하는 무채색의 3개의 면은 내부에서는 삼봉도를 의미하는 세 개의 실로서 이러한 내부공간의 이미지는 외부형태에서도 느껴질 수 있도록 매스로 표현되어있고, 중앙 홀의 형태

도 동해의 일출을 연상시키는 원의 일부분과 수면위로 부딪는 빛을 그대로 공간의 형태로 형상화되어있다. 일반적이지 않은 오각형의 내각이 연상되는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된 전시공간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미의 형태와 공간이 한데 모여 독도박물관을 이루고 있다.

## (3) 삼성상회기념관(이성관, 1999)



<그림 6> 배치도



<그림 7> 전체모습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를 기념하는 곳으로 공간적으로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긴 역사를 가늠케 하는 ‘터’의 의미가 해석되고, 그 혼적들이 조형화 되어 대지가 지닌 의미와 장소성이 조형으로 잘 드러난 작품으로 추상화의 표현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① 유형적 특성: 1938년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에 문을 연 삼성상회는 삼성그룹의 역사의 산실로서.<sup>20)</sup> 1997년 철거된다. 1930년대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었던 이 건물이 해체되고, 장소는 ‘대지의 역사성’, ‘기업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터’라는 개념이 으로 60여 년의 혼적을 재현하고 있다. <그림 7>

② 지형 해부적 특성: 최저고도지구이자 2종 미관지구로서 중심상업지역인 대구시 중구 인교동 61-1번지는 공구상이 즐비한 지역으로 ‘채우기’보다는 ‘비우기’의 개념으로 번잡한 도심에 공간적 휴식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와 사회공헌이라는 차원에서 조성된 사색의 공간이 되고 있다.

③ 형태적 특성: 삼성상회 건물의 사다리꼴 평면과 공간분할, 조형적인 마루 널은 ‘터’라는 개념에 차안하여 기존건물에서 복원요소를 찾아 기념적 성격이 짙은 조형물로서 기둥을 공간의 조형적 요소로 삼고, 재현의 의미를 두어 작은 부분까지도 근거에 토대를 두고 재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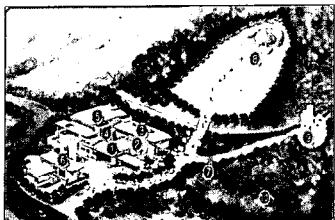
본래 건물 내부의 6개의 목재기둥은 청동 기둥으로 재현되고, 대지경계는 검은색 짐바브웨식의 계시벽으로 구성되어 삼성상회를 알리는 계시판의 역할 뿐 아니라 산만한 주변과의 시각적 관계를 정리하고, ‘터’의 경계를 알리고, 그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물갈기 처리된 계시벽에 청동기둥과 바닥의 반사되는 모습은 과거의 이미지와 의미를 풍부히 하는 수단이 되고, 일출과 동시에 계시벽의 문자들이 해의 방향을 따라 빛

19)독도박물관, 공간, 09, 1997, p.42.

20)잃어버린 혼적·되찾은 혼적, 건축과 환경, 04, 1999, p.134.

나도록 한 설정은 기업의 번영과 그 의미의 극대화를 위한 연출 수단이 되어 대지의 장소성이 조형으로 구현되어 있다.

#### (4)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기념관(박태연, 1998)



<그림 8> 배치도



<그림 9>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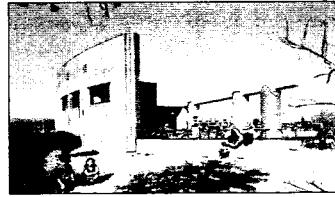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 산16-3번지, 숲으로 둘러싸인 대지는 과거 일제가 저지른 제암리 학살의 현장이다. 묘역이 내려다보이는 대지에는 형태가 강조된 기념비적 상징성보다 우리 정서를 담는 차분한 공간으로 형상화된 건축조형은 순응화, 추상화의 표현유형으로 분류된다.

① 유형적 특성: 제암리 사건은 발안 장날시위 등 수원 화성 지역 주민들의 3.1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보복응징으로 일제 만행의 결정판이다. 본 기념관은 제암리 학살의 현장에 세워져 제암리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의 3.1운동 정신과 수원·화성 지역 주민들의 독립만세운동 참여 상황과 이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있다.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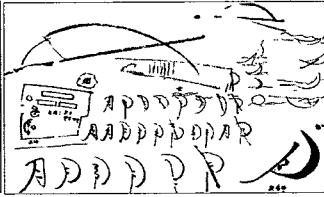
② 지형 해부적 특성: 대지는 발안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1km떨어진 곳으로, 언덕 위에 유족 묘소가 안치되어 있고, 그 아래 낮은 지대에는 제암리 교회와 교육관, 목사사택이 혼존한다. 3.1운동 당시 불탄 교회는 현 위치에서 동남쪽이다. 이 일대의 대지지형은 단면상 크게 3단계로 되어있는데, 표고 30m의 현재사택과 부속건물이 있는 길쪽의 낮은 언덕, 표고35m의 석축과 올라가 평평하게 정지된 yhi부분, 표고37m이상의 묘소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장대한 석축과 경사면으로 독특한 경관을 나타낸다.

③ 형태적 특성: 건축조형은 대지의 역사적 건물 유형인, 순국사건 당시 제암리 교회의 초가지붕을 단서로 한다. 이는 묘역의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형상으로, 순국선열묘역보다 높이가 낮고, 여러 개의 분절된 매스로 구성하고, 지붕의 수평선을 강조, 건축물의 수직성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건축물이 묘역의 이미지를 제압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다.<sup>21)</sup> <그림 9>

#### (5) 청도농기구박물관(오기수, 1993)



<그림 10> 외관



<그림 11> 개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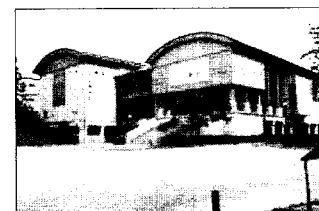
청도출신 운경재단 곽예순 이사장의 유자로 고향에 전래농기구 200여점을 전시하고, 농업문화를 교육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박물관은 대지주변의 흔한 농촌 풍경과 학교 운동장이라는 장소의 맥락을 해석하여 이미지를 부각하는 구조화, 자기 장소화의 표현유형을 이룬다.

① 유형적 특성: 여타 박물관 같은 대지의 역사성이나 상징성과 같은 특성이 두드러지진 않으나,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촌지역과 초등학교 교정이라는 대지의 유형적 특성이 있다.

② 지형 해부적 특성: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지동 465번지 각남초교 운동장 서남측 귀퉁이에 자리한 박물관은 북측으로는 일자형 교사와 남측에는 열린 운동장이 있어 박물관은 학교진입구의 강력한 어트랙션으로 되고 있다.

③ 형태적 특성: '月'의 형상을 좇은 건축조형<sup>22)</sup>은 흔한 농촌 풍경에 공간의 척도를 주고, 곡면의 외벽은 학교교정의 내외를 인지시키고, 이러한 구조물이 이루는 그림의 액자와 같은 틀은 풍경의 크기를 알게 하는 척도가 된다. 또한 건축물은 벌판의 상징물이기보다는 구조물이 이루는 틀과 벽면의 비율을 통해 아동들의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 탄생하여 적극적 활동과 강한 의미를 제공하며, 노출콘크리트라는 소박한 외부재료는 기존 교사와의 이질감을 완화시킨다. <그림 10>, <그림 11>

#### (6) 홍릉산림박물관(김홍식, 1997)



<그림 12> 외관

산림의 가치와 임업, 임산업의 지식정보를 제공, 홍보, 교육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다. 산림이라는 프로그램과 홍릉 수목원이라는 장소의 성격, 작가의 일관된 건축의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전통적 조형언어의 현대화'가 시도된 건축물로서 구조화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림 12>

① 유형적 특성: 박물관이 자리한 홍릉수목원은 1922년 임업시험장이 설립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제 1세대 수목원이며, 명성황후의 능(1897년)인 '홍릉'이 있었던 곳으로, 이러한 역사성이 건축물의 재료나 조형의 근거가 되고 있다.

② 지형 해부적 특성: 대지는 일반주거지이며, 풍치지구로서, 건축물은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홍릉수목원내의 평지에 자리하여, 지형 해부적 접근에 있어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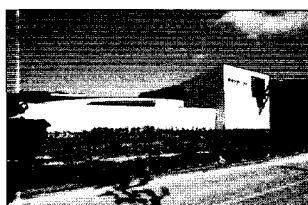
③ 형태적 특성: 홍릉수목원이라는 장소성의 유형적 특성이 조형에 영향을 주어, 작가는 전통건축에서 조형의 단서를 찾고 있다. 기하학적이면서도 유연하고 촉촉한 초가지붕의 맛을 그리기 위해 원호의 지붕선과 전통건축에서의 풍관을 채용하고, 기와 가락을 배치하고 있으며, 몸통에는 황토바람벽의 느낌을 주기 위해 민가주택의 판별에서 보이는 비례미를 재해석, 응용

21)제암리3.1운동 순국유적지 기념관, 건축문화, 07, 1998, p.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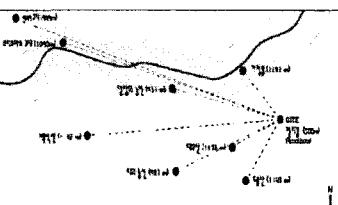
22)청도농기구박물관, 공간, 04, 1994, p.84.

하고 있으며, 내부 공간에는 한옥의 ‘ㅁ’자형 안마당을 재해석한 천정(天井)을 채용<sup>23)</sup>하고 있다.

#### (7) 양구전쟁기념관(이성관, 2000)



<그림 13> 외관



<그림 14> 위치도

치열한 격전지로 기억되는 양구전투현장에 공간을 통해 시간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건축된 기념관은 대지의 총체적 문맥 속에서 건축물이 놓이는 장소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낸 작품이다. 주변의 흔한 산의 풍경이 건축물로 인해 새삼 프레임화되어 역사의 현장과 장소를 구조화하고, 양구전투의 의미를 추상화하여 의미있는 장소로 재해석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 <그림 13>

① 유형적 특성: 1951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 9개의 전투는 오로지 ‘경계선을 위한 고지쟁탈전’으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 전투의 명분은 그 희생에 비해 너무 허망함에, 건축가는 이를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이들의 희생에 대한 덧없음에 주목한다.

② 지형 해부적 특성: 대지가 되는 해안면은 양구군 동북부에 위치한 사방이 해발 1000m내외의 산들에 의해 타원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앙부 표고는 500m내외의 평탄한 고원으로 진형적 분지의 형태이다. 분지 중앙에 세 갈래길이 교차하고, 200m정도 떨어진 곳이 건축부지인데, 각각은 서남쪽의 양구읍과 동쪽의 인제, 서북쪽의 DMZ내의 제4땅굴과 읊지전망대로 연결되어 있고, 본 부지에서의 조망은 편치 볼과 3개고지의 실루엣, 그 능선 너머로 5개의 고지가 있다. <그림 14>

③ 형태적 특성: 위태로이 기울어진 매스, 밖으로 튀어나온 녹슨 철판, 그곳에서 허공을 향해 돌진하는 장병의 모습들로 양구전투의 그 명분의 ‘허망함’을 이야기한다. 진입공간의 9개의 콘크리트 기둥은 양구전투의 9개의 고지를 의미하며, 이 9개의 기둥은 보도블럭에 새겨진 38선을 기준으로 위치를 가늠하며 서있다. 미로 같은 공간을 지나 마지막으로 부딪는 장면은 격전지의 바로 그 장소이다. 건축물은 장면연출을 위한 도구가 되며, 관자는 이 장소를 ‘체험함’으로써 ‘양구’를 기억<sup>24)</sup>하게 된다. 작가는 건축물을 통해 ‘양구’라는 역사의 현장을 재현한다.

<표 2> 박물관의 장소성 발현 구조와 표현유형

장소성 발현 박물관	유형적 특성	지형해부적 특성	형태적 특성	표현 유형			
				순옹화	추상화	구조화	자기장소화
국립해병박물관	가야 문화	경사지 (김해 구지봉기슭)	시간의 적층을 조형화	0			3
				0			2
					0		1
독도박물관	독도 역사	경사지 (울릉도도동 약수공원 산등성이) 울릉도와 독도(삼봉도) 를조형화	오각형 삼, 울릉도와 독도(삼봉도) 를조형화	0			3
					0		2
					0	0	1
							0
삼성상회 기념관	삼성상 회 역사	평지 (대구 중구 인교동 상업지)	삼성상회의 터와 건물을 조형화	0			3
						0	2
				0			1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기념관	제암리 3.1운동 역사	경사지 (제암리 학살현장 3단계언덕 지형)	제암리교회의 초가를 조형화, 지형 에따른건축물 높이변화	0			3
					0		2
					0		1
						0	0
청도농기구 박물관	농촌 문화	평지(청도군 각남초교 운동장)	'月'의 형태를 조형화				0
				0			3
					0		2
홍릉산림 박물관	산림 지식	평지(홍릉수 목원평지)	진통조형언어 의현대화(초 가, 풍관, 'ㅁ'자형마)	0			1
					0		0
						0	0
양구전쟁 기념관	양구 전투 역사	평지(양구전 투현장, 표고 500m내외의 평탄고원)	양구전투의 명분의 허망함을 조형화	0			3
					0		2
					0		1
						0	0

## 4. 결론

건축의 역할은 그것이 지난 전통적 언어의 방법을 통해 장소성의 회복과 인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건축언어란 우리가 환경을 경험하는데 있어 그것을 사물 그 자체에서보다 의미를 지닌 무엇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돋는 도구와 같은 것이다. 즉, 인간이 지상위에 거주하도록 도와주는 구체적 ‘실체’들이며, 작가가 지난 상상의 가시성을 통한 ‘보이지 않는 것-추상’을 보이는 것-구체‘로 아름답게 표상하는<sup>25)</sup> 것이다.

본 연구는 술초의 건축론의 핵심인 ‘장소성’ 이론을 살펴보니, 그의 이론 중 장소성 발현을 위한 세 가지 근거-유형적 특성, 지형해부적 특성, 형태적 특성-를 단서로 하여 한국건축의 다양화, 다원화시기로 불리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현대박물관건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대상으로 한 건축 작품 대개에서 장소성 발현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이들의 그 표현 유형은 작가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순옹화, 추상화, 구조화, 자기장소화로서 각기 다르고, 또한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하이데거가 그의 마지막 글에서 언젠가 현상학 자체가 철학하는 방법이 되어 현상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질 것을 예고

23)홍릉산림과학관, 건축과환경, 11, 1999, p.45.

24)양구전투기념관, 건축과 환경, 12, 2000, p.39.

25)변태호, 앞의 글, p.61.

했듯 이미 ‘장소성’도 우리시대에 건축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 참고문헌

1. Amos Ih Tiao Chang, 윤장섭 역,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기문당, 1984.
2. Christian Norberg Schultz, 민경호 외 역, 장소의 혼, 태림문화사, 1996.
3. Christian Norberg Schultz, 진경돈 · 이정국 역,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미건사, 1994.
4. Martin Heidegger, 건립 · 거주 · 사유, 이상건축, 9707.
5. Martin Heidegger, Poetry · Language · Thought, 1985.
6. Merleau-Ponty, 오병남 역, 현상학과 예술, 서광사, 1983.
7. Rodney Douglas Parker, 이상현역, 예술과 장소-건축과 예술 작품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39, 1995.
8. 강인보, Christian Norberg-Schultz의 현상학적 건축이론에 근거한 실존적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9. 김경재, 한국현대건축에 표현된 한국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7호(12), 1998.
10. 김광현, Merleau-Ponty의 현상학으로 조명한 한국전통건축의 공간론적 장소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77.
11. 김기주, 동양미술에 있어서의 공간개념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
12. 남정훈 · 이호진, 현대건축에 있어서 장소성 표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20권2호, 2000.
13. 박길용, 한국의 현대건축과 포스트모더니즘, 한국학연구, 제5집, 1993.
14. 박항섭 · 윤도근, 한국현대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7호(12), 1998.
15. 변태호, 시적 거주와 세계내 존재의 언어기호적 치환, 건축역사연구, 통권12호, 1997.
16. 변태호,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장소의 신화, 건축역사 연구, 통권11호, 1997.
17. 서상우, 한국의 박물관 · 미술관, 기문당, 1995.
18. 우수영, 현대건축공간에 표현된 장소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19. 조영배, 풍수의 국면과 실존공간이 갖는 공간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5호, 2000.
20. 과거와 현재의 만남: 박물관 건축, 이상건축, 04, 1996.
21. 독도박물관, 공간, 09, 1997.
22. 잊어버린 흔적 · 되찾은 흔적, 건축과 환경, 04, 1999.
23. 장세양, 국립김해박물관, 공간, 09, 1998.
24. 제암리3.1운동 순국유적지 기념관, 건축문화, 07, 1998.
25. 청도농기구박물관, 공간, 04, 1994.
26. 홍릉산림과학관, 건축과환경, 11, 1999.

<접수 : 2005. 8. 25>